

프랑스

프랑스 사회당 내각의 新과학기술정책

김기국<sup>1)</sup>

두 번의 총선

지난 5월 1일 실시된 영국 총선의 결과로 보수당이 물러나고 노동당이 새로 정권을 잡은 데 이어, 꼭 한달 후인 6월 1일의 프랑스 총선에서도 역시 집권 보수당이 패배하고 사회당 내각이 들어섰다. 얼핏 닮은 꼴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정권교체 사례는, 그러나 각기 자국의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대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집권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및 그 입안이나 집행구조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강한 충격을 동반한 변화의 바람이 일찌감치 불어오기 시작했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로 물러난 보수당 내각이 지난 1993년에 출범한 이래, 프랑스의 과학기술계와 정부는 우호적인 관계보다는 팽팽하고 대립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세평을 듣고 있다. 독일과 함께 통합유럽을 이끌어갈 쌍두마차임을 자임했던 보수당 정부는 단일유럽통화(Single European Currency)에의 가입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해 예외없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했고, 그 여파로 과학기술계에서도 국가연구예산 및 연구인력수가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정부에 대해 깊은 회의와 불신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며, 지난 총선기간 동안 사회당에서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지금까지의 교육 및 연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연구예산 및 인력의 감소 추세를 뒤바꾸어 놓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이번 사회당 내각의 탄생은 지금까지의 과학기술계와 정부간 대립을 종식시키고, 양자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일구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교육연구기술부의 탄생

먼저 총선 승리 이후 새로 취임한 사회당의 Lionel Jospin 총리는 6월의 첫째 주에 자신이 구성할 내각 안에 교육, 연구 및 기술 관련업무를 한꺼번에 관장할 독립적인 Superministry를 새로이 설립했다. 교육기술연구부(Ministry for National Education, Research and Technology)라고 명명된 이 신설 부처는 내각내의 서열면에서도 고용부와 법무부 다음으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이전 보수당 내각에서 그 위상이 크게 떨어졌던 과학기술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년 전, 당시 보수당 내각이 과학기술장관의 위상을 영국처럼 이른바 junior minister급으로 한 단계 격하시켜 버림으로써 과학기술계의 큰 당혹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래,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장관의 위상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Jospin 총리가 교육연구기술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오랫동안 과학 및 교육분야의 자문역을 담당해온 Claude All'egre를 임명했다는 사실도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50년대 후반 파리대학 재학 시절부터 Jospin 총리와 단짝이었던 All'egre 신임 장관은 이미 이전의 사회당 내각시절(1988~1993년)에도 당시 Jospin 교육장관의 수석보좌역을 역임한 바 있어 프랑스 정계에 완전히 낯선 인물이 아닌 데다가, 교육 및 과학분야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일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같은 반응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과학기술계에서는 All'egre 장관이 지질학자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과학기술계 출신 인사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는 점을 한층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이전 보수당 내각에서는 4년동안 줄곧 비과학기술계 출신 인사들만을 과학기술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과학기술계의 불만을 적지 않게 누적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 신임 장관의 정책방향

이같은 배경과 주변상황을 의식한 듯 All'egre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연구 및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높이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교육연구기술부의 목표라고 선언했다.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의 수순으로서 금년 말까지 공공연구소 및 대학에서의 젊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이와 함께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크게 확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6월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All'egre 장관은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공공연구소와 대학에 최소한 수백 개의 연구원, 기술원, 강사 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교육연구기술부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최근까지 프랑스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는 현재의 연령구조에 비추어 볼 때 오는 2005년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연구인력의 절반 이상이 은퇴하게 될 것이며, 이들 은퇴를 눈 앞에 둔 고령의 기존 연구인력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대대적인 신진 인력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큰 이슈로서 제기되어 왔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향후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간 500~600명 이상씩 신진 연구인력을 총원해야만 세대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내놓았으나, 이전 보수당 내각에서는 이를 위한 어떤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프랑스에는 약 10,000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프랑스 과학기술계의 종신고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교육연구기술부가 검토 중인 박사후 장학금(postdoctoral fellowship) 지급계획은 앵글로색슨류의 단기계약 형태를 빌어 당장의 실업상태를 해소하는 효과를 겨냥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동성(mobility)을 높임으로써 취업기회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All'egre 장관의 취임 및 그가 시행하려는 새로운 정책은 최소한 그 방향에 있어서 만큼은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일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혁의 아킬레스건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가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제일 먼저 걸림돌로 대두되는 것은 역시 재정문제이다. All'egre 장관이 내세운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과학기술계는 All'egre 장관이 Jospin 총리의 절친한 친구인데다가 그가 알고 있는 교육연구기술부의 정치적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예산의증액 가능성을 낙관시키는 분위기이고, All'egre 장관 스스로도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경제상태가 갑작스럽게 좋아지지 않는 한 정권과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시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전체 공공연구소의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예산의 구조적 경직성은 그동안 실제 연구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 연구소들이 새로운 연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 결국 정부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구인력의 채용만 늘어난다면, 기존의 예산배분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도 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Big Science에 대한 재평가

이같은 와중에 프랑스 과학기술계에서는 향후의 개혁 행보에 관한 일련의 시사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All'egre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은 교육연구기술부가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는 거대과학(Big Science) 분야의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및 국내 공공연구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사회당 내각은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 연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All'egre장관이 기존 거대과학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의 유용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한 개혁작업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런지에 대해 과학기술계 안팎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유인우주선 건조나 우주정거장 건설 등과 같은 국제공동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Jacques Chirac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각에서 마음대로 이를 축소하거나 변경 할 수는 없다. 그러나 All'egre 장관이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프랑스우주기구(CNES)의 사무총장을 교체함으로써 우주정책의 기초와 활동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연구기술부는 이제까지 CNES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국가적 위신"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과학 및 기술촉진"에 대한 고려를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향후 사대 진전의 방향타를 이미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 기대적인 불안감?

현재 프랑스 과학기술계에서는 사회당 내각의 탄생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 출범한 사회당 내각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시적으로 크게 높여 놓은 것이 사실이다. 이전 보수당 내각에서 junior minister급으로 추락했던 과학기술장관의 위상은 일약 내각서열 3위로 뛰어올랐으며, 신임 장관은 과학기술계의 평소 희망대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약속했다. 과거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신임 장관과 총리는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가 깊고,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추진력 면에서 긍정적인 인물들이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장관과 총리가 절친한 친구라는 점에서 실무적인 업무 협조나 예산확보에서도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장미빛으로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신임 장관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수당 내각에서 임명되었던 주요 공공연구소들의 책임자들이 조만간 교체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당연히 연구소들의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오랫동안 빠듯했던 재정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전망 또한 아무래도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는 우려처럼 박사후 장학금 제도의 검토는 자칫하면 프랑스 과학기술계의 종신고용 전통을 깨

고 앵글로색슨류의 단기계약(short-term contract) 위주로 연구시스템의 운영방식을 바꾸어 놓을런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l'egre 장관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표현처럼, 현재 프랑스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않고 있는 장관 보다는 설사 실패하더라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보려는 장관이 더 낫다"는 입장이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당 내각과 교육연구기술부의 탄생을 두고 과학기술계가 느끼고 있는 불안섞인 기대감, 어떻게 보상받게 될 것인가?

주석1) 지표통계분석팀, 선임연구원(Tel: 02-250-3074)